

부흥하는독일교회

청년부, 진도 찾아 농촌 봉사·지역 선교...
지역 어르신 섬김과 교회 지원 사역 진행



부흥하는독일교회(송민우 목사) 청년부 25명이 전남 진도군을 찾아 농촌 봉사 및 지역 선교 사역을 펼쳤다. 청년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3박 4일간 진도 오병이어교회(강봉수 담임목사·김윤수 사모)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 섬김과 교회 지원 사역을 진행했다.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장거리 이동이었지만, 지역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청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진도에 도착한 청년들은 가장 먼저 팽목항(현 진도항)을 찾아 '세월호 기억관'을 방문했다. 참사 12주기를 맞아, 사건이 없었더라면 또래로서 함께 청년의 패를 누렸을 희생자들의 영정을 마주하며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을 다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역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뜨거운 낮 시간대를 피해 새벽부터 '고추 따기'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유례없는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고추 수확이 어렵게 되었다. 다행히, 오병이어교회가 오랜 시간 지역 농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고 옆 마을의 교회들과도 신뢰를 쌓고 있던 터라, 다른 일거리를 찾는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었다.

청년들은 40여 년간 홀로 교회를 지켜온 여전도사를 도와 교회와 사택에 가득했던 집과 쓰레기를 정리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입입이 찾아다니며 돌을 줍고 잡초를 뽑았으며, 오병이어 교회 옛 성전과 사택을 정리하는 등 여러 일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팽방을 올렸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강행군이었지만 청년들의 얼굴에서는 불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농민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가까호호 방문하는 전도사역에 나섰다. 마을 어르신들은 전도지와 선물을 들고 찾아온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청년들 역시 어르신들의 온정 속에 큰 기쁨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섬김은 다음 날 주일 예배의 결실로 이어졌다. 주일 아침 청년들은 특별찬양과 선물을 준비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주변들을 맞이했고, 전날 인연을 맺은 많은 마을 어르신들이 오병이어교회를 찾아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어르신들은 봉사로 일손을 돕고 복음을 전했던 젊은이들의 손을 잡아가며 "벌



리서 찾아와 마음을 나눠주어 고맙다"고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역 마지막 날 밤, 청년들은 사흘 간의 시간을 정리하며 진도 지역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지역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진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믿음의 방주인 오병이어 교회와 주변 수많은 미자립 교회 및 목회자 가정에 위로와 용기가 더해지기를 한 마음으로 구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사이에서 낯선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고,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이번 모든 사역을 통해 청년 각 지체가 자신이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임을 깊이 깨닫는 값진 시간이었다.

오병이어교회 강봉수 담임목사는 "독일교회 젊은 청년들이 함께함으로써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교회에 힘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아우러지는 아름다운 연합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창동교회

사랑을 들고 건너가다... 청산도에 열린 복음의 문
창동교회 위드엘 청년부, 섬마을 어르신들과 예배의 기쁨 나눠

서울북지방회 창동교회(서계원 목사) 위드엘 청년부는 담당 목회자인 이요셉 목사와 청년 15명이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도 청산제일교회(표명찬 목사)에서 '사랑을 들고 건너가다(행 16:9)'라는 주제로 국내선교를 진행했다. 이번 선교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은 출발에 앞서 5주 동안 '부르심·순종·섬김·복음·파송'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완도까지 장시간 이동한 뒤 다시 배를 타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다"는 마음을 품고 청산도로 향했다. 청산도에 도착한 청년들은 이틀 동안 네 곳의 마을회관을 찾았다. 노래와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고, 안마와 손 편리, 미용, 마스크팩 등으로 섬겼다. 처음 한두 시간은 청년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낯설고 서먹함이 있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함께 드려온 중보기도와 현장에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은 그 거리를 빠르게 좁혀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은 어르신들을 더 이상 낯선 마을 주민으로 대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안마를 해드리며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들 역시 청년들의 밝은 웃음과 진심 어린 섬김에 마음을 열었고,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가족 같은 따뜻함으로 바뀌어 갔다.

청년들은 마을회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청산제일교회 주일예배에 정성껏 초청했다. 짧은 만남과 작은 섬김이 실제로 주민들의 예배 참석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16일 주일 아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청년들의 초청에 응한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청산제일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교회 승합차 한 대로 성도들을 모셔왔지만, 이날은 선교팀 차량까지 함께 운행해야 할 만큼 많은 주민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배당을 채우자 표명찬 목사와 교회 성도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을 이장의 참석은 의미가 컸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교회로부터 예배 초청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장이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것이다. 이날 청년들은 청산제일교회 성도들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을회관에서 만났던 어르신들과 예배당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청년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다. 예배 후에도 섬김은 계속됐다. 청년들은 직접 준비한 시원한 냉면과 민두, 수박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배식과 설거지, 교회 환경 정리까지 맡았다. 그리고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교제를 이어갔다.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설었던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이제는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청산도 선교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처음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



고 돌아왔다"며 "마을회관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을 주일예배에서 다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국내선교를 인솔한 이요셉 목사는 "청산도에서 받은 은혜를 한 번의 행사로 남기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청산도에서 시작된 사랑의 발걸음은 이제 청년들의 일상 속 선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등촌제일교회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세운 다음세대
기관별 다양한 활동, 저마다 특징 살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등촌제일교회 다음세대와 청년공동체는 "변화된 마음으로 분별하는 다음세대"라는 주제 아래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여름사역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의 성장을 함께 나누었다. 이병현 담임목사의 교육학적 방향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은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으며, 온 교회는 다음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마음을 모았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 집, 작은 방주"를 주제로 영·유아 가족캠프가 진행되었다. 영유아 시기는 아이가 교회를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때이며, 가정은 가장 가까운 신앙교육의 자리이기도 하다. 1박 2일 동안 가족들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을 쌓았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작



은 방주임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유치부와 유년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라는 주제로 7월 4일(토)부터 5일(주일)까지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유치부는 등촌제일유치원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지역의 어린이와 가정의 교회를 경험하도록 했다. 특히 유치부의 연합여전도회는 참여 가정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며 따뜻한 환대를 나누었다. 유년부는 주제의 관련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담당 교역자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부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계



기였으며, 교사 부족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내 비전트립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초등부는 7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여름캠프에 참여했다. 말씀과 찬양, 기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친구들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 됨을 배워 갔다.

학생부는 7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남양주에서 자체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특별히 공동체 선언문을



함께 만들고 고백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는 군산의 선교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신앙 유산을 직접 경험하며, 오늘 자신들이 걸어가는 할 믿음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는 "별을 보다"를 주제로 5박 6일의 몽골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담당 교역자와 청년부장이 동행한 가운데, 청년들은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성경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번 비전트립은 선교지를 섬기는 시간인 동시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과 부르심을 돌아보는 여정이 되었다. 청년공동체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여름수련회를 통해 비전트립에서 받은 은혜와 배움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세대와 청년들의 믿음은 한 계절의 행사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번 여름사역은 교역자와 교사, 부모와 장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교회는 부대위 속에서 다음세대와 성도들, 그리고 누군가가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공간@마임에 Cool Time을 운영하면서 비치된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쉼을 경험하도록 했다.